

21C 화학산업 발전을 위하여!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전제조건

한국 석유화학산업이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석유화학 관계자는 없을 것이다. 석유화학산업이 아직까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까닭은 1970-80년대의 독과점적 지위에 연연한 나머지 발전적인 구조개혁에 한발자국도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 석유화학산업이 스스로 발목을 붙잡고 있는 요인은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아니 잘못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독과점적 지위에서 이탈하는 것이 두려워 잘못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이 가장 크다 할 것이다. IMF 위기에서도 IMF를 불러왔던 장본인으로서의 반성은 단 한마디도 없었고 스스로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한 나머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역행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을 정도이다. 즉,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등한시해 경쟁력을 높이는데 실패함으로써 위기요인을 상시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재벌들의 천민 자본주의가 너도나도 석유화학 참여를 부채질함으로써 외형적으로 에틸렌 생산능력이 500만톤을 넘어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고, 합성수지 생산능력도 900만톤을 넘어섬으로써 세계3위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생산기업당 평균 에틸렌 생산능력은 70만톤을 약간 넘어 미국의 143만톤, 사우디의 145만톤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합성수지도 20만-30만톤으로 도토리 키재기식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매출규모도 1999년 170억달러로 다국적 화학기업인 DuPont의 1998년 매출액 248억달러에 훨씬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Dow Chemical과 Union Carbide가 합병한 새 Dow Chemical에는 계임도 되지 않을 정도이다. 현재는 많이 개선됐다고 하나 주요 석유화학기업 중 현대석유화학과 삼성중합화학은 1999년 부채비율이 500%를 넘었고 4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내는 등 부실덩어리로 남아 있으며, 여천NCC를 비롯해 대한유화, LG석유화학, SK 석유화학부문 등도 수익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구조조정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IMF를 계기로 현대석유화학과 삼성중합화학이 일본 Mitsui상사 컨소시엄과의 Big Deal을 추진했으나 지나친 부실로 외자유치에 실패했고, 대림산업과 한화석유화학이 NCC를 통합해 여천NCC를 설립했으나 부실덩어리를 통합했다는 의미 이외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정도에 그치고 있다. 현대와 삼성은 Mitsui, 타이완의 Formosa, 중동의 IPIC, 세계은행 산하 IFC 등과 외자유치 및 매각, 합작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고, 대림산업도 폴리머사업을 매각 또는 합작으로 전환한 뒤 석유화학사업에서 철수할 방침이지만 질곡에 빠져 있다.

반면, 다국적 화학기업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대규모 인수·합병을 통해 세계 시장점유율을 높이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Dow Chemical과 Union Carbide는 2001년2월 정식합병에 성공해 에틸렌 세계 시장점유율을 8%대로 높였고, Shell Chemicals과 독일의 BASF는 자회사인 Montell, Elenac, Targor를 합병시켜 Basell을 출범시킴으로써 PP 및 PE 시장점유율이 12-16%에 오르고 있다. ExxonMobil, Chevron Phillips, BP Chemicals(BP-Amoco), TotalFinaElf 등이 합병을 통해 세계 10대 석유화학기업으로 부상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우디의 Sabic은 에틸렌 생산능력이 400만톤을 넘어섰으며, 이란 NPC도 2005년에는 에틸렌 500만톤 체제를 달성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 뿐이 아니다. 중국은 BP, BASF, Dow 등과 합작으로 2005-07년까지 에틸렌 생산능력 60만-90만톤 크래커 6기를 건설할 계획이고, ExxonMobil이 싱가포르에 에틸렌 80만톤 크래커를 건설한 것을 비롯 타이완이 에틸렌 자급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으며, 동남아도 다국적 화학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신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구조조정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에 따라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고 말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석유화학기업들이나 관계자들이 독과점적 지

위를 과감히 버릴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는 있다.

석유화학구조조정에 앞서 천민 자본주의, 건전한 충고조차 거부하는 배타성, 그리고 중화학 육성 정책의 특혜에 매달려 안주하려는 구시대적 매너리즘을 버릴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화학저널 2001/3/5>